



케이지의 관리(2)

임 병 규
<한국 바보록원종동장 전무>

3. 케이지 육추관리

케이지계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청결과 좋은 상태로 육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추를 분리시킨 사육방법은 관리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다.

필히 올인 올아웃을 실시해야 하며 따라서 전제군이 전부 같은 일정이어야 한다.

케이지 수용수수

소형종(Mini Leghorn)이 몇 군데 육종가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지만 보통 전형적인 레그흔종과 중형종(갈색란을 생산하기 위해 기르는)의 두 타입으로 분리하여 수용수수를 결정한다. 물론 육추케이지 크기는 병아리숫자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바닥면적은 일정하게 해주어야 한다.

레그흔 : 6주시까지 $155\text{cm}^2/1\text{수}$

중형종 : " $181\text{cm}^2/1\text{수}$

급온

온수판으로 열을 육추케이지에 공급할 때에는 물은 약 $82.2^\circ\text{C}(180^\circ\text{F})$ 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등을 마주대고 있는 케이지에서는 한개의 파이프로 두개의 케이지에 급온해 주는 수도 있다. 열을 반사시키기 위해 파이프위에 무거운 열반사지를 놓는 수도 있으며 어떤 케이지에서는 사이에 끼워 넣는 수도 있다.

케이지바닥깔이종이

종이는 철망바닥의 케이지에서 약 2주동안 놔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종이는 무겁고, 면이 약간 거칠고 높은 방습처리가 된 것이어야 한다.

이 바닥깔이 종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이

있다.

① 병아리가 어릴때 단단한 바닥을 제공해준다.

② 철망눈금크기가 큰 케이지의 사용도 가능하다.

③ 육추지역을 따뜻하게 해준다.

④ 첫먹이를 위해 편안하고 일정한 지역을 제공해준다.

급수

병아리는 평사바닥에서와 마찬가지로 케이지 육추에서도 한번에 빨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꼭지, 컵등 병아리가 먹는 것을 배우기에 어려운 급수장치는 1일령의 병아리에게는 부적당하다. 따라서 처음 먹칠동안은 주동이가 적은 접시모양의 급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급수장치는 병아리가 커짐에 따라 높이를 알맞게 조절하도록 해야한다.

음수소독 : 소독이 급수로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급수를 통해 백신을 복용시킬 때라도 깨끗한 물을 주도록 주의해야된다.

제사온도

케이지육추는 제사온도가 높아야 되므로 실내 온도를 $15.6^\circ\text{C}(60^\circ\text{F})$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이 온도 이상이 병아리를 평하게 해주고 추가급온 비용을 감소 시켜준다. 그렇다고 실내온도를 너무 높게해서는 안된다. 평사에서처럼 철망바닥에서도 높은 온도는 카니발리즘을 유발시키게 되므로 환기를 적당히 해주고 높은 외기온을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을 때는 제사내를 서늘하게 해줘야 한다.

접등

접등은 평사에서보다 케이지사육에서 빛의 광

도를 일정하게 공급해주기가 더욱 더 어려울다. 이 문제는 다단케이지일 경우 더 어려움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위에 걸린 전구로부터 나오는 빛의 광도는 하단 케이지보다 상단케이지에 광도가 더 많기 때문이다.

점등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병아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빨리 배우므로서는 상대로 육추시작을 할 수 있도록 처음 4일 동안 밝은 광선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② 4일이 지난 후 점등계획에 따라 점등시간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조절계획은 병아리가 성성숙에 도달함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다.

③ 일반적으로 육성에 필요한 광도는 하단케이지 지역에서 약 $\frac{1}{2}$ 피트 촉광이어야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료섭취를 위해 적당하며 카니발리즘을 많이 방지해 준다.

백신접종과 투약

평사사육과 마찬가지로 케이지에서도 백신접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수용밀도가 높으므로 많은 질병이 더 만연되기 때문이다. 특히 호흡기질병이 생길 우려가 많다.

투약 역시 질병 발생 처리뿐만 아니라 케이지 질병을 조절하는데 중요하므로 필히 해야 한다.

요주의 : 1일령 추부터 산란시까지 완전히 케이지로만 사육될 때에 탄은 거의 완전하게 콕시듐의 위협이 없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탄들은 콕시듐 원충란과의 접촉이 없게 되므로 질병에 면역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만약 탄이 케이지에서 평사로 옮겨지면 콕시듐이 발생한 좋은 기회를 주게 된다.

벗자르기와 부리자르기

산란케이지에 있는 동안 벗이 심한 상처를 내는 수도 있으므로 따라서 부화시에 벗자르기를 하는 것이 좋다.

부리자르기 ; 식우병(카니발리즘)은 탄이 육성이 나 산란중에 작은 케이지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판연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중 부리자르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널리 쓰인다. 부리자르기는 성성숙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어느 일령에서건 할 수 있지만 6~9일령에 부리자르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4. 육추시 급이

정확한 영양에 관해서는 다음에 논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어린 병아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급이 문제가 있다.

먹이형태

병아리를 받기 전에 먼저 사용될 먹이의 형태를 결정해놔야 한다. 보통 반죽형태나 가루형태로 사용하지만 대부분이 반죽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루로 만들어진 사료와 같이 먹이를 압착하는 것은 더 많은 카니발리즘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초이사료(첫먹이)

사료는 병아리가 처음 케이지에 수용될 때부터 병아리가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철망바닥에 짧이 종이를 펴놓고 종이 위에 첫 먹이를 놓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며 육추케이지에서 급이기는 병아리가 먹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소에 놓여져야 한다.

급이기 요구면적

처음 6주간 급이기 요구면적은 수당 약 2.5cm이다. 대부분 육추케이지에서는 이 정도의 크기나 또는 약간 더 크게 해주고 있다.

육추시 자유급이

처음 6주동안 병아리는 자유급이 시킨다. 사료 공급은 케이지에 따라 사람이 해주거나 자동기계로 해주는 것이 있겠지만 방식에 관계없이 사료는 항상 있어야 한다.

만약 종이가 사용안된다면 처음 2일간은 급이기가 가장자리까지 가득히 사료를 채워주도록 한다.

사료소비량

사료소비량은 병아리체통, 사료성분, 주위온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좌우되므로 다음표는 사료소비량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다.

처음 6주간 100수당 주별 사료소비량

주 별	소형종(1)		레그론(전형적)		중형종(2)	
	1일소비 률	누계 비 률	1일소비 률	누계 비 률	1일소비 률	누계 kg
1	0.95	6.6	1.32	9.0	1.60	11.3
2	1.32	15.9	1.81	21.8	2.59	29.5
3	1.77	28.5	2.45	39.0	2.77	49.0
4	2.31	44.7	3.18	61.2	3.94	49.0
5	2.63	63.2	3.63	86.6	4.13	105.7
6	2.78	82.8	3.81	114.0	4.31	136.0

(1) 레그론의 73%로 기준을 둘

(2) 갈색란